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
청원 검토보고서

□서울시립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신설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먼저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, 서울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립대학교로서 학문을 교수·연구하며 서울시민에 봉사하고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육성·발전하여 왔으며, 현재 서울시 및 각 구청의 직제에는 생활체육과가 설치되어 체육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스포츠지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, 또한 전국 단위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각 시·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.

그러나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생활체육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명실공히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,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현장의 일익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봉사하며 복지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.

○먼저 대학 내 학과신설 절차를 말씀드리면, 고등교육법을 기본법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년 학생정원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자체 조정→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심의→서울시 승인→교육인적자원부 심사·승인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.

○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스포츠,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므로 전문화, 세분화된 생활체육, 건강관리분야의 전문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양이나 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임.

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도 생활체육관련 조직이 설치되고 생활체육협의회 등 민간차원의 생활체육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, 1998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생활체육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0개소에서 약 430여 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○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체육교사 양성과 이론중심의 체육학과를 설치·운영하고 있고 생활체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서울 1개 교 지방 6개 교가 있음.

※서울(1개교) : 삼육대학
지방(6개교) : 동신대학, 원광대학, 한남대학, 세명대학, 단국대학(천안분교), 한양대(안산분교)

○따라서, 서울시립대학 내에 복지사회구현의 측면에서 스포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스포츠현장을 지도, 관리, 운영할 수 있는 사회교육적 자질을 갖춘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관련 학과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고, 또한 시립대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매년 논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○다만, 생활체육학과의 설치가 도시과학대학으로의 특성화를 위한 전략목표와 서로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.

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학과의 설치는 필연적으로 학생정원과 교수정원의 증원 등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바, 현재 관련법규(고등교육법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)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.